

시연施連칼럼

경주 운곡서원 고찰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운공파회장

이처럼 정조(正祖) 8년(甲辰年, 1784)부터 무진년(戊辰年, 1868)까지 84년간의 봄가을 향사는 안동 대당회나 지역 유림을 이끌었던 후손들이 초헌관(初獻官, 산장 겸임)을 맡았다. 조선(朝鮮) 후기였던 1869년부터 1902년까지 35년간은 기록이 없으나 지금의 고택(故宅) 정침(正寢) 또는 1976년에 중창된 현 서원(書院) 경덕사(景德祠) 자리에 단(壇)을 쌓고 제향을 받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高宗) 8년(1871)에 내린 서원 철폐령 기간에도 위판을 동산(東山, 悠然亭 東山)에 묻고 향사를 받들었다. 춘추향(歲二享)에서 세일향(歲一享, 봄향사) 전환은 1903년 설단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120년간 유지되고 있다.

1903년 단향과 동시에 초헌관(初獻官, 院長 兼任)이 안동권씨(安東權氏)에서 경주향내 이름있는 유림(儒林)으로 전환된 사실도 이채롭다. 계묘년(癸卯年, 1903) 설단 이후 첫 봉행된 향사의 단장(壇場, 山長 初獻官)은 이매구(李邁久) 前 縣監이, 향유사연 월성인(月城人) 손진필(孫晉弼, 慶州人)이 맡았다. 이 시기부터 권씨(權氏)에서 이매구(李邁久)가 주축(主軸)을 맡고 성손(姓孫)일지라도 유림(儒林)에서 명망이 두터워 않으면 수임(首任)이 될 수 없었던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행정처리는 문유사(후손)가 맡았다. 또 전일(前日) 입제에서 당일 입제는 2015년(委員長 權赫根, 2021년 작고) 경주유림(慶州儒林)이 승인한 이후부터였다.

운곡서원(雲谷書院)은 보릿고개를 지낼 시기 에 더 빛났다.

당시는 향사 이삼일 전부터 강당(講堂)과 동서재(東西齋)는 물론 고택(古宅) 전사정(典祀廳), 유연정(悠然亭)까지 후손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한국전쟁(韓國戰爭, 1950)이 나던 해 봄향사에 참여한 권기수(權奇壽 菊堂) 후손은 새벽녘 소변이 마려웠으나 포개진 다리에 눌러 그만 오줌을 찔린 일화가 전해질 만큼 봄빛다.

당시는 소 한 마리와 돼지 두 마리를 잡고 감성을 했다.

음복에 쓰일 떡은 장정 넷이서 네 모서리를 잡고 지금의 고택으로 옮겨갈 만큼 한섬이 넘는 물량이어서 풍성했다. 예나 지금이나 신위(神位) 전에 올리는 제물(祭物)은 생채여서 음복례(飲福禮)에만 올려질 뿐이다. 보릿고개를 넘는 그 시절 서원(書院)을 찾은 동네 아이들에게 떡이 최고 인기였다. 서원(書院)의 넉넉한 인심이 어른이 되어서도 추억(追憶)이 됐다.

농경문화(農耕文化)에서 산업사회(産業社會)로 전환되고 한국경제가 안정기로 진입했던 시기부터 세시풍속(歲時風俗)이 빠르게 달라져 전일(前日) 입제에서, 그리고 2015년부터는 당일 입제가 되었지만 경덕사(景德祠) 제향 공간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資料出處: 雲谷書院誌 考往錄, 慶州鄉賢錄, 葛山集〉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은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을 모시는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유일한 서원(書院)이다.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을 주벽에, 동벽엔 조선(朝鮮) 6대 임금 단종(端宗)의 이모부이신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 1403~1456) 선생이, 그리고 서벽엔 조선(朝鮮) 13대 임금 명종(明宗) 때 대과에 급제한 대학자이자 병조 예조 정랑(正郎)을 지낸 귀봉(龜峰) 권덕린(權德麟, 1529~1573) 선생을 배향하는 2백 40년 역사를 지닌 향중서원(鄕中書院, 1784년 正祖 8년 創建)이다.

운곡서원(雲谷書院)이 창건됐던 1784(甲辰)년부터 1868(戊辰)년까지 84년간은 안동부(安東府)에서 대당회를 이끌었던 원로(元老)들이 산장(山長, 初獻官 또는 書院長/甲辰年 첫해의 山長 權相繼)을 맡거나 경주부윤(慶州府尹, 從二品)이 제물(濟物)을 보내고 산장(山長, 初獻官)을 맡아 서원(書院)의 위상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무신년(戊申年, 1848) 추향(秋享)의 경우 당시 경주부윤(慶州府尹) 이석년 권씨(權澣, 1792~1859, 字는 景深, 한성에서 태어나 純祖 27년 병과를 36살에 급제)이 “차례(茶禮)를 봉행하고 종족(宗族)을 모아 잔치를 베풀고 읍시(邑詩)를 지어 돈목(敦睦)의 교화가 경주 고을에 행해지다. 또 제목을 정하고 책자(冊子) 1권을 만들어 서원의 고사(古事: 옛일)로 삼았다.”고 기록 됐다. (三月十一日. 府尹 權澣. 行茶禮. 而會宗族謙之. 歡極賦詩. 敦睦之化, 行於州. 修題名. 錄成一冊子. 以爲祠中古事)

이 밖에도 “묘우 정문의 환철(還鐵)을 개비(改備)하다. 주사(廚舍)의 정침(正寢) 5칸과 문사(門舍) 6칸의 토역(土役)이 2월 16일에 시작되어 그름에 이르도록 재력(財力)이 부족하여 아직 마치지 못했다. 계정(溪亭: 유연정)을 도배하고 방구들을 고치다. 강당 남쪽 상방(上房) 방구들을 고치다. 실방(室房)의 방구들을 고치다. 재실방(齋室房)의 방구들을 고치다. 강당 북쪽이 퇴락(頹落)하여 두 곳을 새로 쌓다.”

경주부윤(慶州府尹) 권씨(權澣, 從二品)은 부윤(府尹, 從二品 外官職)에서 물러날 때까지 운곡서원(雲谷書院)과 유연정(悠然亭)을 보살폈으며 다음 해(己酉年 1849) 춘향(春享) 때도 산장(山長, 初獻官)을 맡았을 만큼 숭조사상(崇祖思想)이 고강했다.



권오신 사무총장, 권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권태윤 부회장(왼쪽부터)

권태윤 부회장과 권오신 사무총장은 9월 23일 권기창 안동시장과 권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권영세 전 안동시장을 방문하여 현재 대당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후면 일대 국가유산 성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문화유산 성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동시 서후면 일대는 보물 제55호인 봉정사 대웅전 등이 위치하고 있고,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다수의 국가지정유산과 경상북도 지정 유산 및 안동시 지정 유산 등 국·도·시·군 유산 등이 밀집되어 있는 특수한 역사문화 보고(寶庫)의 지역이므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국가문화유산 성지로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권태윤 부회장은 이 사업은 풍산류씨와 안동김씨, 안동장씨, 의성김씨, 봉정사 등과 상호 협력하여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일이다.

므로 전 재경안동향우회 회장으로서 안동을 위해 안동의 품격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시 서부지역 일대 국가유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세계/국가유산	지정 등급	비고
세계문화유산	봉정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보	봉정사 극락전	국보 제15호	
보물	봉정사 대웅전	보물 제65호	
	봉정사 회암당	보물 제448호	
국가급	안동권씨 능동재사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83호	
	풍산류씨 금계재사	국가민속문화유산 제288호	
도 지정	안동김씨 태정재사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 제26호	
	원주변씨 간계종택 및 간재정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31호	
	의성김씨 학봉종택	경상북도 기념물 제112호	
	송암고택 관물당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1호	송암 권호문
시 지정	안동권씨 송파재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안동권씨 북아궁파
	안동권씨 시조 권행 묘소	안동시 문화유산 제124호	
역사적 인물	안동장씨 성곡재사	안동시 문화유산 제78호	
	안동장씨 경당종택	미지정	음식미명의 저자 정계환의 친정집
	창열서원과 단계종택	미지정	서육신 중의 한 사람인 단계 하위위 위패영안
	학봉역사문화공원	미지정	의성김씨
	경광서원	미지정	배상지, 이충준, 정충효 위패영안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41>

인재실기(忍齋實紀)



권갑현 편집위원장

〈인재실기〉는 조선 전기의 학자 권대기(權大器, 1523~1587) 공의 시(詩)와 편지에 세계도(世系圖)와 부록을 붙인 것으로, 2권 1책이다.

공의 자(字)는 경수(景受)이고 인제(忍齋)는 호(號)이다. 안동권씨 22세(世)로 부정공파(副正公派)이다. 권엽(權燾, 1488~1580)의 아들이고, 송소(松巢) 권우(權宇, 1552~1590)의 부친이다.

공은 일찍이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하에 들어가, 월천(月川) 조목(趙穆),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지산(芝山) 김팔원(金八元),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 약포(藥圃) 정탁(鄭琢), 지령(芝嶺) 윤의정(尹義貞), 유일재(惟一齋) 김연기(金彦幾), 두곡(杜谷) 고응척(高應陟) 등과 교유(交遊)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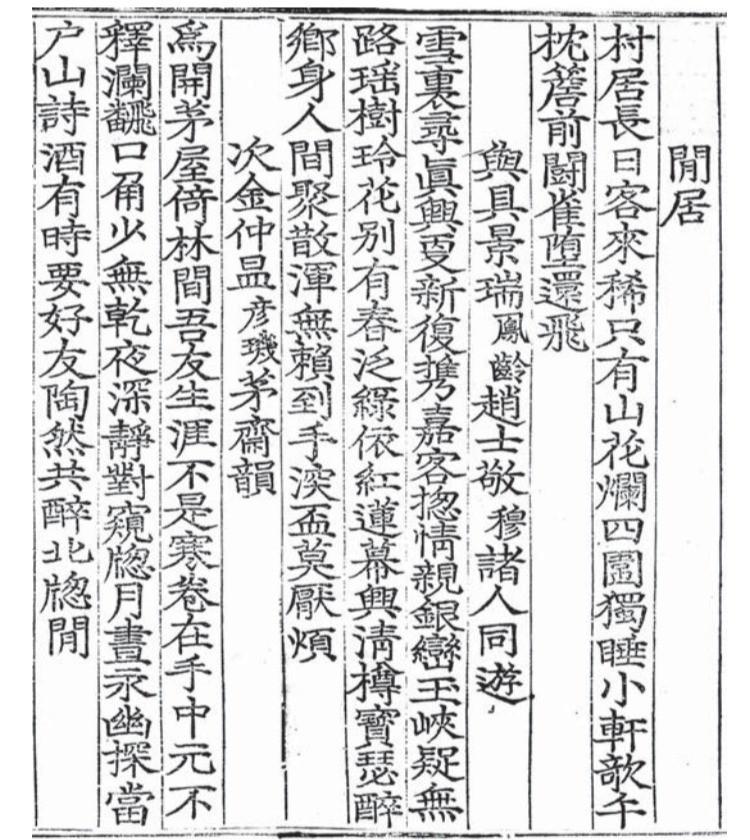
1552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유학하여, 경전(經典)에 능통하고 힘써 공부한다는 칭송을 받았다. 마흔이 넘자 과거공부를 단념하고 안동 와룡(臥龍)에 이계서당(伊溪書堂)을 지어 은거하며 후진양성에 힘썼다.

둘째아들 권(宏, 1575~1652)이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됨으로 인해, 공이 중훈대부 사형부집의(司憲府執義)에 증직되었다. 뒤에 용계서원(龍溪書院)에 배향되었다. 봉안문과 축문은 호곡(壺谷) 류범휴(柳範休)가 지었다.

〈인재실기〉는 후손[9세손(世孫)]들에 의해 편집되어, 1811년경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공의 글은 시 5편, 편지 2편이 전부이고, 그 외는 부록이다. 앞부분에는 ‘세계도(世系圖)’ 26면이 실려 있다. 서문은 구와(龜窩) 김광(金光, 1739~1816)이 지었으며, 권후지(卷後識)는 류범휴(柳範休, 1744~1823)가 썼다.

권상(卷上)에는, 한가로운 지내며 지은 시(詩) 한 수(首), 동문과 함께 노닐며 지은 시 한 수, 동문의 시에 차운(次韻)한 시 두 수, 동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挽詩) 한 수 등 모두 다섯 수와, 만아들 우(宇, 1552~1590, 호 송소(松巢))에게 답한 편지 두 편이 있다. 부록으로, 동문수학한 학봉 김성일과 공의 문인들이 지은 만사(挽詞) 두 편과 제문 다섯 편이 실려 있다.

권하(卷下)는 부록으로, 이황(李滉)이 보낸 편지 한 편과 시가 있고, 월천 조목의 연보(年譜)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 전기(傳記) 자료로 공의 만아들 우(宇)가 기록한 행록(行錄), 류범휴(柳範休)의 부친인 류도원(柳道源, 1721~1791)이 쓴 행략(行略), 넷째아들 환(煥)이 쓴 묘지(墓誌), 간옹(良翁) 이현경(李獻慶, 1719~1791)이 지은 묘갈명(墓誌銘)이 있다. 그밖에 근암서원



(近巖書院) 등 다섯 개 서원의 통문(通文) 또는 답통(答通)이 있다. 다음은 공의 시 다섯 수 가운데서 앞의 세 수를 국역한 것이다. 첫 번째 시는 제목이 〈한거(閑居)〉로, 이는 공이 한가하게 은거하면서 긴긴 봄날 하루를 읊은 것이다.

村居長日客來稀(촌거장일객래희) 시골에 사니 긴긴 날 찾아오는 나그네 없고
只有山花爛四圍(지유산화난사위) 오로지 산꽃들이 사방에 찬란하게 피어있네
獨睡小軒欹午枕(독수소헌의오침) 홀로 작은 마루에서 대낮에 베개 베고 조니
簷前鬬雀雀還飛(염전두작작환비) 처마 앞 참새들 싸우다 떨어졌다 다시 나네

다음은 동문인 백담 구봉령·월천 조목과 함께 노닐면서 지은 것으로, 하얗게 눈 내린 경치, 이런 곳에서 거문고 타며 술 마시는 즐거움, 인간세상 멀리 떠나 있는 마음, 그리고 동문들과의 진한 우정을 읊었다.

雪裏尋真興更新(설리심진흥갱신) 눈 속에서 진경 찾으니 흥이 더욱 새로운데
復携嘉客摠情親(부휴가객총정친) 또 반가운 손님 함께하니 모두 정이 친하네
銀鑿玉峽疑無路(은만옥협의무로) 은빛봉우리에 고운골짜기 길이 없는듯하고
瑤樹玲花別有春(요수영화별유춘) 나무와 꽃이 아름다워 따로 봄이 온 것 같네
泛綠依紅蓮幕興(범록의홍연막흥) 배 띄우고 단풍나무에 기대니 연막의 흥이
淸梅寶瑟靜鄉身(청준보슬취향신) 맑은 술과 비파 가락에 별천지의 몸이라네
人間聚散渾無賴(인간취산혼무뢰) 인간세상 만나고 헤어짐이 온통 쓸모없으나
到手深慙莫厭煩(도수심참막엄번) 내게 돌아온 술잔일랑 싫다 하지 말 것이네

세 번째 시는 동문 유일재 김연기의 〈모재(茅齋)〉 시에 차운한 것이다.

爲開茅屋倚林間(위개모옥의림간) 초가집 하나 지어 숲속에 의지해 지었으니
吾友生涯不是寒(오우생애불시한) 나의 벗은 한 평생을 춥지는 않을 것이네
卷在手元不釋(권재수중원불석) 책이 손 안에 있어 본디부터 놓지 않았고
瀾灑口角少無乾(난변구각소무간) 물기는 입술에 조금도 마르지 않네
夜深靜對窗明月(야심정대규창월) 밤 깊어 조용히 마주하여 창문 달 옆보고
晝永幽探當戶山(주영유탐당호산) 낮이 길어 그윽이 찾았던 산을 대하네
詩酒有時要好友(시주유시요호우) 시와 술은 이따금 좋은 벗이 있어야 하니
陶然共醉北窗閒(도연공취북창한) 북창아래서 한가히 거니하 함께 취해보세

이 시는 동문이 자기마한 서재를 짓자, 그의 원운에 차운하여 벗의 서재 마련을 축하하면서, 한편으로 손에서 책을 놓지 말기를 바라며, 밤에는 달빛, 낮에는 앞산도 바라보고, 때로는 친구도 불러 거니하 취해보자고 하였다.

안동권씨 대종회 Btv ‘본관사수’ 프로그램 출연

안동권씨 대종회 권오신 사무총장과 권형완 편집국장, 권주미 총무과장은 9월 2일 12시부터 15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85 지하 1층 엠케이스튜디오에서 국내 최초 성씨 토크쇼에 출연했다.

MC는 유명 개그맨 김용만씨와 개그맨 박성광씨,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 그리고 요즘 성대모사로 뜨고 있는 개그맨 양승원씨가 맡아서 진행했다. 제작진에서는 본관사수 프로그램에 한국에 수많은 성씨들이 있지만 안동권씨가 첫 번째로 꼭 출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 이유는 본관사수 프로그램 전문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가 안동권씨가 한국 최초의 족보를 만들어 모든 족보의 기준이 되며 1000여 년 동안 명문가 중의 명문가로서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시조 태사공께서 득성하고 본관을 받은 시점이 한국 본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안동권씨가 첫 번째로 출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천해서 그렇다는 설명을 했다.

김용만씨는 안동권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양반이다. 안동권씨가 양반의 대명사가 된 이유, 구국의 영웅 임진왜란의 명장 권윤장군, 1974년 12월 1일자로 창간된 안동권씨 종보, 3000여명이 참석한 안동권씨 청장년체육대회 등에 대해 토크쇼를 진행했다. 권형완 대종회 회장은 일정상 9월 10일 대종회 사무실에서 녹화했다. 10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권형완 편집국장



권형완 편집국장, 개그맨 박성광, 김용만, 이익주 교수, 권오신 사무총장, 권주미 총무과장(왼쪽부터)